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손혜경¹, 권수혜^{1*}, 박현주²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²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Hye Gyeong Son¹, Suhye Kwon^{1*}, Hyun-Joo Park²

¹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Busan Women's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 15일에서 12월 10일까지 B시와 C시에 소재한 3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정, ANOVA, Scheffe 검정, Pearson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생활스트레스 정도($r=-.657,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r=.455, p<.001$)과 영적안녕($r=.494,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스트레스($\beta=-.418, p<.001$), 건강상태($\beta=.213, p<.001$), 영적안녕($\beta=.210, p=.025$), 전공만족도($\beta=.146, p=.003$), 자아탄력성($\beta=.109, p<.001$)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56.5%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35 nursing students in three nursing schools in B and C city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10, 2016,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life stress ($r=-0.657, p<0.001$) and between ego-resilience ($r=0.455, p<0.001$) and spiritual well-being ($\beta=0.210, p=0.025$)($r=0.494, p<0.001$).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participan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ife stress ($r=-0.657, p<0.001$), ego-resilience ($r=0.455, p<0.001$), and spiritual well-being ($r=0.494, p<0.001$).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were life stress ($\beta=-0.418, p<0.001$), health status($\beta=0.213, p<0.001$), spiritual well-being ($\beta=0.210, p=0.025$), satisfaction with major ($\beta=0.146, p=0.003$), and ego-resilience ($\beta=0.109, p<0.001$); these factors explained 56.5% of the vari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adequate educational strategies are needed to reduce the life stress and increase health status, spiritual well-being, satisfaction on major, and ego-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to promote thei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Keywords :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Ego-Resilience, Life Stress, Nursing Students, Spiritual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 Suhye Kwon(Kosin Univ.)

Tel: +82-51-990-3956 email: 113009@kosin.ac.kr

Received March 16, 2017

Accepted May 12, 2017

Revised (1st April 7, 2017, 2nd April 27,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성장하면서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청소년기를 지나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율성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가지며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달리는 성인기로 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이다[1]. 또한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문제, 학점 이수 등이 잠재적 스트레스원이 되며[2] 수동적인 중, 고등학교 시기의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3].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69.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학문의 특성상 과중한 학업량, 임상실습 수행 및 간호사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일반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생활 스트레스 관리는 변화된 환경에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이며 대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5].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환경과 자신 간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맞춰가는 과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스트레스란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에 부담이 되고 자신의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상태이다[6].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어렵고[3,7]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어 간호학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8]. 또한 스트레스 경험은 불안, 우울 및 신체적 장애 등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야기하고[9], 자신감이 없어지며 성적이 저하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0] 그로 인해 학업능력이 저하되어 휴학, 자퇴 등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학생들의 환경과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을 저하시키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11].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 등의 관련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생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으로 개인의 감정조절과 환경변화 적응,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적인 적응과 역경 극복을 의미한다[12].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은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며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고 삶에서의 긍정적인 참여가 증진되어, 낙천주의적, 생산적, 자율적인 활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및 능숙한 자기 표현력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14], 치위생과 학생의 경우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만족이 높으며, 자아탄력성과 학업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은 높다고 하였다[15].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의 하나로 영적 측면에서의 영적안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영적안녕이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과 관련된 영적요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이다[16]. 즉, 인간의 영적본성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하는 능력이며 절대자, 자신, 이웃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통합, 조화, 평화를 이루는 안녕상태를 말한다[17]. 특히 영적안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와 가치관 정립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16] 다양한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영적안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신앙은 개인의 적응에 도움이 되며, 영적안녕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에의 안녕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보고들[14,18]에 근거할 때 영적안녕이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3,14,19],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20],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정서지능, 종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성지능이 확인되었으며[21,22], 정서지능이 높을수록[21], 종교가 있는 경우[2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을수록[21],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문제해결 중심 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22], 정서지능이 높을수록[22],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이루어졌으나,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대학생활 적응에의 영향 요인을 단편적으로 규명하고 있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활스트레스를, 정서심리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또한 영적요인으로 영적안녕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보다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와 C시 소재 3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들로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의로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케 한 후 수거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 IRB 2016-0086-01)을 받은 후 수행되었고, 자료수집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7 program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α 는 .05, 효과크기는 medium(.1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6개를 입력하여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204명이었다. 탈락률 약 20%를 고려하여 240부를 배부하였고 237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지에 대한 답변 중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부적절한 답을 한 2명을 제외한 235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생활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경구와 김교현, 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2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50개의 문항으로 동성친구 5개 문항, 이성친구 6개 문항, 가족관계 6개 문항, 교수관계 6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차원 스트레스 4개 영역과 학업문제 7개 문항, 경제문제 7개 문항, 장래문제 8개 문항, 가치관문제 5개 문항의 당면과제 차원 스트레스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5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24]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Yoo와 Shim[25]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3개 문항, 호기심 5개 문항, 감정통제 2개 문항, 활력 2개 문항, 낙관성 2개 문항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24]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3.3 영적안녕

본 연구에서 영적안녕은 Paloutzian과 Ellison[26]이 개발한 Spiritual Well-Being Scale을 Kang[2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실존적 안녕과 종교적 안녕의 2개의 하부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1, 2, 5, 6, 7, 12, 16, 18번 문항은 역 문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언제나 그렇다’ 4점까지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안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Baker와 Stryk(198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도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8]가 수정, 번안한 대학생활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개 하부영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Lee[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는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5명(6.4%), 여학생 220명(93.6%)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21-24세가 113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72명(30.6%)로 가장 많았다. 종교에서는 ‘없다’라고 답한 군이 115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92명(39.1%)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중’이 190명(80.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좋다’가 133명(56.6%), ‘보통이다’가 78명(33.2%) 순이었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은 120명(51.1%)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는 ‘좋다’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49명(63.4%)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은 119명(50.6%)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29 ± 0.56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대인관계 1.79 ± 0.58 점, 당면과제 2.72 ± 0.67 점이었다. 자아탄력성 평균은 4점 만점에 2.81 ± 0.37 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

균은 대인관계 3.05±0.40점, 호기심 2.72±0.50점, 감정 통제 2.87±0.53점, 활력 2.82±0.53점, 낙관성 2.63±0.60점이었다. 영적안녕 평균은 4점 만점에 2.69±0.41점이었으며, 종교적 안녕 2.39±0.58점, 실존적 안녕 2.99±0.49점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5점 만점에 3.12±0.50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학업적 적응 2.82±0.67점, 사회적 적응 3.44±0.56점, 정서적 적응 3.06±0.76점, 신체적 적응 3.05±0.62점, 대학에 대한 애착 3.25±0.73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경제 수준($F=6.414$, $p=.002$), 건강상태 ($F=42.266$, $p<.001$), 동아리 활동($t=2.097$, $p=.037$), 대인관계($F=16.523$, $p<.001$),

전공만족도($F=31.556$, $p<.001$), 학교생활 만족도($F=48.37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검정으로 사후분석한 결과 경제수준이 ‘상’, ‘중’인 학생이 ‘하’인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더 높았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좋다’, ‘보통’,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순으로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더 높았고, 동아리활동의 경우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이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대인관계는 ‘좋다’를 선택한 학생이 ‘보통’, ‘좋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학생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이다’,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Table 1).

Table 1. Life Stress, Ego-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level by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N=2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15(6.4)	81.93±16.52	1.381(.169)
	Female	220(93.6)	77.73±11.01	
Age(yr)	18-20	107(45.5)	77.46±11.25	0.259(.772)
	21-24	113(48.1)	78.34±11.44	
	25≤	15(6.4)	79.27±13.35	
Grade	1st	58(24.7)	80.40±12.16	1.352(.258)
	2nd	72(30.6)	76.72±11.20	
	3rd	48(20.4)	76.75±11.11	
	4th	57(24.3)	78.21±11.14	
religion	Christian	92(39.1)	79.09±11.51	0.527(.664)
	Catholic	10(4.3)	76.10±12.18	
	Buddhist	18(7.7)	78.17±8.90	
	None	115(48.9)	77.26±11.72	
Economic status	High ^a	19(8.1)	80.37±11.76	6.414(.002) a,b>c
	Middle ^b	190(80.9)	78.76±11.04	
	Low ^c	26(11.1)	70.69±11.79	
Health status	Good ^a	133(56.6)	82.76±10.21	42.266(<.001) a>b>c
	Moderate ^b	78(33.2)	73.71±8.88	
	Bad ^c	24(10.2)	65.54±10.63	
Club activity	Yes	120(51.1)	79.52±11.56	2.097(.037)
	No	115(48.9)	76.41±11.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a	184(78.3)	79.99±10.96	16.523(<.001) a>b,c
	Moderate ^b	41(17.4)	72.27±10.16	
	Bad ^c	10(4.3)	64.80±8.64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a	149(63.4)	81.81±10.81	31.556(<.001) a>b>c
	Moderate ^b	71(30.2)	72.65±9.15	
	Not satisfied ^c	15(6.4)	65.47±8.11	
Clinical practice	Yes	119(50.6)	78.36±12.06	0.222(.824)
	No	116(49.4)	77.83±12.82	

3.4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녕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생활스트레스 정도($r=-.657$, $p<.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r=.455$, $p<.001$)과 영적안녕($r=.494$,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r=-.446$, $p<.001$)과 영적안녕($r=-.416$,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탄력성은 영적안녕($r=.45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자아탄력성, 영적안녕, 생활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 중 경제수준, 건강상태, 동아리활동여부,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수준, 건강상태, 동아리활동,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를 가변수로 경제수준은 상을 1, 중, 하를 0으로, 건강상태는 좋음 1, 보통과 나쁨을 0으로, 동아리활동여부는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대인관계는 좋음 1, 보통과 나쁨을 0으로, 전공만족도는 만족 1, 보통과 불만족을 0으로 가변

Table 2. Nursing Students's Life Stress, Ego-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N=235)

Variables		Items		Mean±SD		Scale range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50	23	2.29±0.56	1.79±0.58	1-5
	Pending problems		27		2.72±0.67	
Ego-Resilience	Relationship	14	3	2.81±0.37	3.05±0.40	1-4
	Curiosity		5		2.72±0.50	
	Emotional control		2		2.87±0.53	
	Vitality		2		2.82±0.53	
	Optimism		2		2.63±0.60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well-being	20	10	2.69±0.41	2.39±0.58	1-4
	Existential well-being		10		2.99±0.49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cademic adaptation	25	5	3.12±0.50	2.82±0.67	1-5
	Social adaptation		5		3.44±0.56	
	Emotional adaptation		5		3.06±0.76	
	Physical adaptation		5		3.05±0.62	
	Attachment to university		5		3.25±0.73	

Table 3. Correlation in Life Stress, Ego-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N=235)

Variable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r(p)	Life Stress r(p)	Ego-Resilience r(p)	Spiritual Well-Being r(p)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1	-.657(<.001)	.455(<.001)	.494(<.001)
Life Stress		1	-.446(<.001)	-.416(<.001)
Ego-Resilience			1	.454(<.001)
Spiritual Well-Being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N=235)

Variable	B	SE	β	t	p	F	<i>p</i>
Constant	2.490	.283				61.901	<.001
Life Stress	-.374	.047	-.418	-9.028	<.001		
Health Status†	.349	.074	.213	4.711	<.001		
Spiritual Well-Being	.252	.061	.210	2.252	<.001		
Satisfaction with Major‡	.150	.050	.146	3.007	.003		
Ego-Resilience	.144	.068	.109	4.226	.035		
Tolerance=0.675-0.905 VIF=1.105-1.482 Durbin Watson=2.022 Adj. R ² =.565 F=61.901							

Dummy variable [†] (0: moderate, bad; 1: good)

Dummy variable [‡] (0: moderate, not satisfied; 1: satisfied)

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0.675~0.90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는 1.105~1.482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 값 역시 2.02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스트레스($\beta = -.418, p < .001$), 건강상태($\beta = .213, p < .001$), 영적안녕($\beta = .210, p < .001$), 자아탄력성($\beta = .109, p = .035$), 전공만족도($\beta = .146, p = .0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대학생활 적응을 56.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61.901, p < .001, \text{Adj.}R^2 = .565$)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29 ± 0.56 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Yi[29]의 연구에서 2.2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1.79점, 당면과제 스트레스는 2.72점으로 이는 Lee[33], Kim과 Yi[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즉,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보다 당면과제 면에서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당면과제는 학업, 경제, 장래, 가치관 등의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각적인 스트레스원을 제공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지원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은 4점 만점에 2.69 ± 0.41 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ung[30]의 연구에서 2.65점(4점 만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종교적 안녕 2.39점, 실존적 안녕 2.99점으로 실존적 안녕이 종교적 안녕보다 더 높았다. 이는 Sung[30], Kim et al.[3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대학생은 종교와 상관없이 삶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실존적 안녕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

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2.29 ± 0.56 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Park과 Kwon[32], Shin과 Park[33]의 연구결과에서 모두 2.80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아탄력성이 연령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Park과 Kwon[32] 등의 연구에 근거할 때 본 연구대상자들이 Park과 Kwon[32] 등의 연구대상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3.12 ± 0.50 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Jeon과 Yeom[3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위영역으로는 사회적 적응 3.44 ± 0.56 점, 대학에 대한 애착 3.25 ± 0.73 점, 정서적 적응 3.06 ± 0.76 점, 신체적 적응 3.05 ± 0.62 점, 학업적 적응 2.82 ± 0.67 점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적응이 가장 높았고 학업적 적응이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과 Yeom[34], Kim[35]의 연구에서 학업적 적응이 가장 낮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을 돕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마련과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경제수준, 건강상태,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다수 선행연구 결과 [19,34,35,36,37]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비 및 생활경비와 관련해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건강증진의 기회를 부여하며 폭넓은 대인관계를 제공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영적안녕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 정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n과 Min[14], 그리고 Jung[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먼저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 속에 있으며, 많은 학습량과 임상실습을 통한 스트레스가 크므로 전통적인 이론수업의 방식 외에도 다양한 수업방식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기수업과 임상현장에서 의 의료진, 환자, 그리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대학생활에의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아탄력성과 영적안녕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이론과 임상실습의 병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건강한 대처를 통해 자기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동기부여는 물론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선후배와의 관계강화를 통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영적안녕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16], 이러한 이유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스트레스, 건강상태, 영적안녕,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총 56.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스트레스($\beta=-0.418$)로 나타났는데, 이는 Jung[3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생활스트레스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낮은 병원 실습 환경, 국가고시 합격 등에 대한 압박, 경제적 부담, 가치관 혼란 등과 같은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활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생활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마음수련 명상 프로그램[39]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beta=0.213$)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정

도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과 Lee[3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인지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40].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물론 실제로 대학 내 헬스센터 등의 이용을 통한 건강증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적안녕($\beta=0.21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14,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영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영적안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을 통합하는 통일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41], 전체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성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beta=0.146$)로서, 간호학과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19], Lee와 Chea[37]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전공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학습의욕과 연결되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22]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흥미를 높이며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109$)으로 나타났다. 이는 Yun과 Min[14], Ko[2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간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며 높은 스트레스를 극복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9],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따라서 생활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탄력성은 효과적인 대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영적안녕, 전

공만족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생활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시키며 건강증진 기회를 부여하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외부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영적안녕, 전공만족도 및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영적안녕과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 영적안녕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활스트레스, 건강상태, 영적안녕,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총 56.5%이었다. 이 중 생활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활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영적안녕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프로그램의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생활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유지 및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영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 S. Han, G. M. Kim, Comparison to Self Esteem, Family Adapta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6, no. 1, pp. 78-84, 2007.
- [2] J. H. Ha, H. I. Jo,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2, pp. 595-611, 2006.
- [3]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 261-268, 2012. DOI: <http://doi.org/10.7739/jkafn.2012.19.2.261>
- [4] Statistics Korea, Korean Social Trends 2013 of Korea Home page,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3.
- [5] H. J. Park, I. S. Ja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14-23, 2010.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6] Lazars & Folkman,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pp. 150-170, 1985. DOI: <http://doi.org/10.1037/0022-3514.48.1.150>
- [7]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8]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9] D. W. Hahn, K. K. Chon, J. K. Tak, C. H. Lee, K. H. Lee, A Study on Life Mal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Anxiety, Edpress and Somatization, *Proceedings of the 1992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 pp. 447-462, 1992.
- [10] Magnussen & Amunds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 vol. 5, pp. 261-267, 2003. DOI: <http://doi.org/10.1046/j.1442-2018.2003.00158.x>
- [11] K. O. Hong, H. W.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0, no. 1, pp. 69-81, 2009.
- [12] Block, J., Block, J. H,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 Collin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39-101, 1980.
- [13] Y. J. Lee, H. Y. Min, Y. M.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types, and college 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5, no. 4, pp. 125-144, 2004.
- [14]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395-403, 2014.
DOI: <http://doi.org/10.14400/jdc.2014.12.12.395>
- [15] H. K. Yun, M. S. Choi, J. H.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self=elasticity of student in dental hygienic influences study satisfaction and life adaptation of colle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5, pp. 335-343, 2014.
DOI: <http://doi.org/10.14400/jdc.2014.12.5.335>
- [16] H. I. Le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1, pp. 7-15, 2002.
DOI: <https://doi.org/10.4040/jkan.2002.32.1.7>
- [17] Y. H. Lee,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6.
- [18] H. R. Hwang, K. H. Suh,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6, no. 4, pp. 709-724, 2011.
DOI: <http://doi.org/10.17315/kjhp.2011.16.4.005>
- [19]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doi.org/10.1111/jkana.2011.17.3.267>
- [20]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2, pp. 125-134, 2013.
DOI: <http://doi.org/10.12811/kshsm.2013.7.2.125>
- [21]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59-4466,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7.4459>
- [22]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DOI: <http://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3] N. Y. Lee, The Effects of Empathy and Life Stress on Stress Coping Strateg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6.
- [24] Block, J., &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649-661, 1996.
DOI: <http://doi.org/10.1037/0022-3514.70.2.349>
- [25]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6] Palouzian, R. F. & Ellison, C. W.,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 Peplau LA & Perman D.(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urkl John Wiley & Son, pp. 224-236, 1982.
- [27] J. H. Kang, A study on spiritual well-being of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1996.
- [28]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9.
- [29] H. J. Kim, M. S. Yi,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37-245, 2015.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30] M. H. Sung, Spiritual Well-Being and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vol. 9, no. 3, pp. 222-229, 2009.
- [31] G. H. Kim, G. D. Kim, Hye-Sun Hyun, The Study of Spiritual Well-Being and Stress Perceiv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Gimcheon College of Science*, vol. 36, pp. 15-25, 2010.
- [32]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41-350, 2013.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33]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36-5645, 2013.
DOI: <http://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34] H. O. Jeon, E. Y. Yeom,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2, pp. 796-807, 2014.
DOI: <http://doi.org/10.5392/jkca.2014.14.12.796>
- [35]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3, pp. 301-313, 2014.
DOI: <http://doi.org/10.5392/jkca.2014.14.03.301>
- [36] S. A. Ahn, K. S. Lee, Effects of Hardi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4, pp. 2165-2178, 2013.
- [37]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55-365,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10.355>
- [38] H. 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59-268, 2016.
DOI: <http://doi.org/10.14400/jdc.2016.14.7.259>

- [39] Y. S. Song, Effects of a Meditation Program o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Quality of Life with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2, pp. 965-974, 2013.
- [40] M. O. Chae,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95-103,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5.95>
- [41] Frankl, V. E., *Man's Search for meaning :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59.
- [42] W. J. Park, J. Y. Han,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65-375, 2011.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1.17.3.365>

박 현 주(Hyun-Joo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인제대학교(간호학 석사)
- 2013년 2월 : 인제대학교(간호학 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보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손 혜 경(Hye Gyeong Son)

[정회원]



- 1999년 2월 : 인제대학교(간호학 학사)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간호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종양, 만성질환, 보완대체

권 수 혜(Suhye Kwon)

[정회원]



- 1990년 2월 : 연세대학교(간호학 학사)
- 1999년 8월 : 유타렉트 대학교(간호학 석사)
- 2013년 2월 : 고신대학교(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영성, 질적연구방법